

회개의 사전적 의미는 잘못을 뉘우침, 고침 (repentance, penitence, contrition) 등이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죄--그것이 무엇이든--를 "회개"한다고 이해한다. 그러려면 "죄"가 무엇인지를 먼저 밝혀야 하는데, 이 글의 목적은 "죄"를 정의하고자 함이 아니라, 회개의 의미를 찾고자 함이다.

교회 내에서 그 쓰임을 알아보려면 성서를 읽어야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 먼저, 우리말이나 영어와는 달리, '회개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메타노에오(μετανοέω)는 직접 목적어 없이 홀로 쓰이든지 혹은 다른 문구와 함께 사용된다. 예를 들면, "...으로부터"(ἀπό, ἐκ) 회개하다; "...에 대해"(ἐπί) 회개하다 등이다. 특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와 왔느니라"(마 3:2)에서처럼 목적어 없이 홀로 쓰일 때는 무엇을 회개하는지, 사전적 의미로 읽으면,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우리의 질문: 목적어 꼭 있어야 하나? 우리말이나 영어 표현을 보면, 반드시 있어야 말이 통한다. 왜냐하면 회개를 "...을 뉘우치다," "...으로부터 돌이키다" 등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 무엇(목적어)을 묻게 된다.

다시 읽기

앞서 "회개하라"고 아무 목적어 없이 사용할 때 생기는 문제 외에, 다른 문제 하나는, 인간 편에서 신(하느님)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일이다. 그런 일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그런데 성서에 이런 표현이 나온다. 아모스 7:3, 6 절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주여 이 일을 돌이키소서(μετανόησον) 간청한다. 같은 동사 메타노에오(μετανοέω)를 명령어법으로 쓰고 있다. 헬라어는 히브리어 슈브(שוב)와 니함(נחם)를 한가지로 번역하는데, 여기에 쓰인 히브리어는 후자다.

헤라어 메타노에오는 두 낱말의 합성어다. 노에오는 마음(νοῦς)의 동사형으로 '마음쓰, 생각하기'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메타(μετά)는 보통 2 격(genitive case)에서는 "함께"(with)라는 뜻을 그리고

4 격(accusative case)에서는 "이후에"(after, behind)라는 뜻을 갖는다. 그런데 여기 또 다른 뜻이 있다.

메츠거 교수는 3 개의 표현을 통해 "변화"의 의미를 찾아낸다. 그가 제시하는 3 개의 예는: 1) μεταβαίνω (I pass from one place to another, depart); 2) μεταμορφόω (I change to another form, transform); 3) μετανοέω (I change my mind or purpose, repent) => Bruce M. Metzger, *Lexical Aids for Students of New Testament Greek* (3d ed.), p. 83

바로 이런 의미에서 회개란 기본적으로 생각/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감정의 변화라기 보다, 의지/뜻의 확립, 변화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 3:2; 4:17)는 느닷없이 튀어나오는 말이 아니라, 어떤 상태/대상을 염두에 둔 말이다. 특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 1:15)는 이런 차별화 선언을 잘 보여준다. 지금까지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가치관/복음에 대한 '마음쓰를 바꾸고'(μετανοέω, 회개), 이제는 하느님의 복음(막 1:14)을 따라 살라는 말이다.

회개는 통회자복보다 더 뿌리 깊은 가치관/신앙의 변화이다.